

환경기술장 수상관련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종합에너지(주) 환경과장 차재명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 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금장 수상과 관련 water & wastewater Exhibition 참가가 부상으로 준비되어 10월 5일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고 들뜬 마음에 방콕과 캄보디아에 대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며 첫발을 디딜 장소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속에 디데이를 기다렸다.

드디어 기다리던 10월 5일의 아침이 밝아왔고, 나는 폼나는 선글라스 등 혹 잊어버린 물건은 없는지를 부산히 챙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걸음을 옮겼다.

8시쯤 만나기로 한 장소에 서너명의 낯선 이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를 인솔하여 줄 여행사 사장님도 보이는 듯 했다. 금방 여행을 떠날 16명이 모여들었고 출국을 위한 준비로 서로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우리는 전시회 참관을 위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비의 세계로의 설렘으로 인하여 늦은 잠을 청한 나는 비행기에서 몰려오는 피곤함에 잠깐 눈을 붙인 후, 옆자리에 앉은 일행분과 인사를 나누었다. 창명환경에서 온 방민수 대리라 소개하고 이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인천에도 거주를 하였고 나이도 나와 같아 금방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약 5시간 30분 정도 비행후 방콕의 전경이 비행기 너머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첫 인상은 뭐랄까 우리나라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정도의 느낌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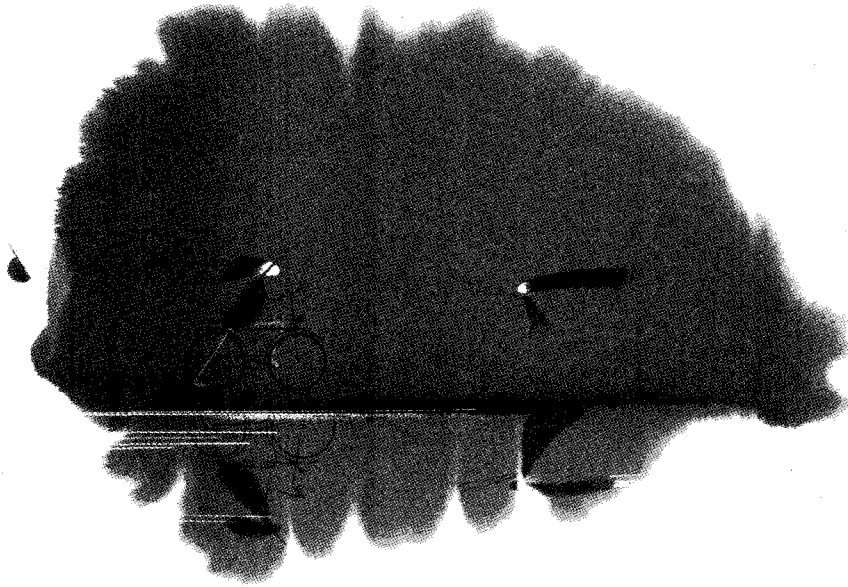
새마을 운동후 짙 지붕을 털어 내고 파란색 스퀘트 지붕의 동일 모양이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성냥갑들 사이를 지나 돈무앙 국제공항에 첫발을 내려놓았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일행을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우리의 첫 방콕 일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무앙 돈타니로 출발하여 여러 종류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water & waste water exhibition 참관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 속에서 현지 가이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태국 말은 "그러려니" 였는데 이 말의 뜻은 태국은 더운 나라이므로 모든 행동이 느리다며 무엇을 하든 한국사람 같은 조급함을 가지지 못하니 가급적이면 "그러려니"하라는 따의 우리나라말을 알려 준 것이었는데 정말로 전시회 참관을 위한 수속 역시 더디게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으며 이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구경하고 물어보고 적는 등 우리나라 코엑스 전시관을 들르듯 휘젓고 다니는 사이 저녁이 찾아 왔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마리 아트 리움 호텔로의 이동을 위해 버스로 몸을 실었다.

아! 방콕의 밤! 호텔로 이동한 우리는 check in을



한 후 각각 룸메이트를 배정(?) 받았다.

나는 기술장 수상 당시 안면이 있던 부산지역 환경업체 선두환경기술주의 이국두사장님과 한방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화려한 날의 3인방(나, 방대리, 이사장님)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야한 밤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두들 즐거운 한밤을 보내고 다음날의 일정을 위한 꿈나라로 향한다.

둘째날, 호텔에서서의 조식들 마치고 총론시 하수처리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일행은 분주했다.

방콕은 우리나라 보다 모든 수준이 약 20년 뒤진다고 했듯이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었다.

방콕에는 모두 6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우리는 이중 Chongnonsi Water Environment Control Plant라는 시설을 견학하였다.

담당하는 면적 28.5km², Yanawa라는 지역에 위치한 이 시설은 580,000명 정도의 인구가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다 처리용량이 200,000m³/일

로 우리와 함께한 대구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팀들에게 전문 의견을 구한 결과 우리 설비보다는 후진국형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렇게 처리한 물을 조경수나 허드렛물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 또한 이들에게는 굉장한 재활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여 준 직원에게 우리 일행을 대표해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준비하여 간 홍삼세트를 기념으로 주고 사진한방은 기본. ... 그곳에서 홍삼은 정력제로 통해 홍삼을 받는 것은 굉장한 선물이라 가이드가 귀뜸해 준다.

이제 또 뻑뻑한 오후 일정을 소화하여야 한다. 일행은 또 분주하다. 어제 다 보지 못한 전시회 보러 또 캄보디아를 향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일행의 오후는 오전 못지 않게 분주하게 흘러갔다.

또 새로움을 만나기 위한 캄보디아로의 이동을 위해 방콕공항으로 향한다.

무리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지 버스에 앉자 피로감이 몰려오고 밖은 비까지 내린다.

Ⅲ 해외산업시찰을 다녀와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는 작을텐데 흑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한다 버스로 가면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정이 장난 아니라고 한다. 덜컹거리는 우리나라 시골길 정도랄까?(멀미는 기본이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 간다. 홀루랄라~

아무튼 우리는 하늘로 올랐고 약 1시간후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내에서 비자 수속을 마치니 밖은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둘러 준비된 버스에 올랐고 본인을 "용툼"이라 소개하는 건장한 가이드로부터 그곳에서의 간단한 일정을 소개받았다. 도로 밖의 사정이 궁금해 창밖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저녁을 먹고 가이드의 이야기가 이곳은 내전으로 인하여 방콕보다도 훨씬 가난한 나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는 아! 감이 오질 않는다.

아침! 용툼은 그곳말로 크고 위대하다라는 말로 가이드의 키가 큰 것에서 생겼단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보다 일찍 둘째 날을 마감한다.

세째날, 네째날 아무리 전시회 및 업무를 위한 방문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그곳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체험하는 것 또한 그 얼마나 중요한가.

촌놈 조금 일찍 일어나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해보고(물맛이 짜다.) 아침을 먹고 서둘러 아침을 맞이한다.

가이드 말이 오늘은 약 8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야 한단다 경사 75도의 계단도 올라야 한다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한다. 캄보디아의 아침 풍경 정말 우리나라 시골의 30년전 풍경이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 이에 대한 반박은 없을 것이다.

약간의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중앙선이 없는 길을 운전수 아저씨는 참 잘도 간다. 먼저 앙코르 톰 일

원의 남문 남쪽 크레앙에 도착을 기점으로 오전에만 바푸온 사원, 바이온 사원, 코끼리 테라스, 래프트 테라스 등 앙코르에서 내노라는 유적 방문을 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가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가이드 파이팅!

점심을 먹고 세계 7대 불가사이 중 하나인 앙코르 톰을 보았다.

가이드 아저씨 힌두 문명과 불교 문명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진 불가사이에 대하여 열심히 열심히 거품 물고 설명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75도 경사 한번 타고나니 다 잊어버렸다.

(정말로 미안함, 다음 기회가 되면 MP3 가지고가 용툼 아저씨 이야기 녹음하리라...) 저녁 어스름 영화 톰 레이더의 배경 지었던 프놈바켕에서 일몰을 구경하려 올려 갔으나 날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캄보디아에서의 멋진 일몰은 다음 기회로...

아쉽다. 다음날은 캄보디아의 자연호수인 톰레이 호수 및 수상촌등의 방문이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 이 먼저 반긴다.

"원달러" "원달러"를 외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기브미 초코렛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도 그네들의 행복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행복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한 조사기관이 발표했다.(가이드왈)

왜일까? 참 여러가지를 생각해 하는 나라다.

점심후 바레이 호수 및 웨스트 메본 사원을 관광 후 우리는 다시 방콕행 비행기를 탄다.

마지막 밤!

너무 정신 없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정작 아직 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아! 이것은 아니다.

여기서 3인방이 다시 뭉쳐 여러방의 인원들을 모은다. 약간의 주류와 다과를 준비하니 이사장님과 내가 묵는 방으로 한분두분 몰려온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인력팀 장님이 아프시다고 하신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내색 않으시고 마지막 밤을 잘 보내라 하신다.

고맙다. 그래서 서로의 소개를 하며 싸가지고 간 가방의 소모품들을 모두모두 소화해 낸다.

모자라 밖에 가서 태국 소주(40도)도 한병 추가한다 뭔가 허전하다.

2차가 빠졌다. 우리나라 사람들 1차에서 코가 빼뺏어져도 맥주 입가심 한잔더 해야술 먹고 친해진 듯한 느낌! 다 아시리라... 이내 10불씩의 거출이 시작되고 택시 3대로 일행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마지막 아침! 눈을 뜨니 벌써 마지막 아침이다.

4박 6일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깐 지나간 여정을 생각해 본다. 즐거웠다. 많은 분들을 또 사귀었다. 그럼 또 오늘을 시작해볼까...

오늘은 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왕궁을 처음 방문지로 하였다. 거대하다, 웅장하다, 멋있다 수상시장새벽사원, 에머럴드사원 등등을 통해 태

국의 모든 것들을 느껴보려 노력한다.

야! 정말 아쉬운 시간들이 가고있다.

이제는 여행을 종료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야 할 시간 무엇을 여러분들은 할 것인가? 두고 온 부인, 자녀, 직장의 동료들 얼굴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 무엇인가 뜻 깊은 선물을 해야한다.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태국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우리는 돈무앙 공항을 떠났다.

야!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역은 양주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대전이 있으면 좋을텐데...) 모두 다르지만 꼭 한번 다시 만나 One Night in Bangkok을 외치며 소주 한잔 기울였으면...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신 간 안 내

환경공학요론

자문인 : 장준영
펴낸곳 : 도서출판 성안당
02)841-0511
정 가 : 값 10,000원

「수질환경공학요론」

- ※ 환경공학도의 기본실력 향상이나 환경분야의 수험대비 필독서!
- ※ 노트정리 형식의 집필로 누구나 공부하는데 이해와 습득이 쉽도록 구성됨.

차례

- 제1편 수질오염개론
- 제2편 수질오염방지기술
- 제3편 상·하수도 계획
- 부록